

갤러리 색즉시공



마음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단다. 마음으로만 보이자...

마음의 집에서는 마음에 갇혀 있다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림 · 글=희상님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현대인의 비애

Buddha in Comic & Ani

◎ Song의 <미쳐 날뛰는 생활툰>

웹툰(Web Toon)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웹툰의 특징은 만화의 구성 컷들을 빠르게 소비하는 데 있다. 양쪽으로 펼쳐 넘기면서 보던 출판 만화는 빠르게 보기 보다는 찬찬히 정독하며 감상했다.

빠른 스토리 전개를 특징으로 한 웹툰에서 가장 최적화된 장르의 바로 '생활툰'이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만화로 만드는 '생활툰'은 짧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다른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의 소비 방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웹툰의 성장은 다양한 자기 이야기가 담긴

'생활툰'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세대 웹툰 작가인 강도영은 자기 주위의 엽기적 이야기들을 담아낸 <일상다반사>를, 캐릭터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정철연은 주변인을 의인화한 <마린블루스>를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벌어진 각종 실수담, 육아 이야기, 어이없던 일들을 재미나게 풀어내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이 같은 질문을 대답하게 풀어낸 작품이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마친 Song의 <미쳐 날뛰는 생활툰>이다. 총 36화로 이뤄진 작품은 '생활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은 만화가를 꿈꾸는 미대생 주인공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주변인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웹툰은 주변인들과의 간극을 만들어 내고 어렵게 베스트 도전까지 올라 정식 작가 데뷔를 눈앞에 두지만 허위유포에 스스로 좌절하고 만다.

생활툰은 기본적으로 '옛보기'를 전제로 한다. 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공해 독자들에게 소비시키는 것이다.

'웃겨야 사는' 생활툰 작가의

이중적 삶을 상반되게 표현

'진정한 자신'에 대한 고찰 전례

생활툰의 즐거움 일상을 동경하고 이를 바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소비다. 이는 SNS시대와 데칼코마니처럼 남아있다.

한상기의 저서 <소셜미디어 특강>에서는 SNS에 대한 기본적 욕구에 대해 "SNS에서 사람들이 표현하려는 기본 욕망은 자기도취이고 채우고자 하는 것은 관음증"이라고 풀이한다.



<미쳐 날뛰는 생활툰>에서 주인공이 그리는 웹툰(사진 왼쪽)과 진짜 자신의 이야기(사진 오른쪽). 상반된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무엇이 진짜 자신인지를 되물어 본다.



은 대중 속에 매몰돼 있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물어 본다.

작가는 후기에 이렇게 기록한다. "광대도, 연예인도, 소설가도 아닌 생활툰 작가만의 중도는 어디쯤 있을까요? 자기를 그리는 모습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고 지켜야 할까요?"

생활툰 작가의 삶만 그려왔을까. 현대인 역시 무수한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 연인 사이에서 나' 등 수많은 관계 맺음 속에서 거기에 맞는 자신을 연기한다.

은 대중 속에 매몰돼 있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물어 본다.

은오프라인에서 가면을 지장하기에 바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공언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만 지장하지도 말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dvertisement for Chilseong Sanghwa (칠성상회)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a printer, patches, coffee mats, and book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2-879-2007.

Advertisement for Pyeonbaeknamu (편백나무) featuring a wooden table with a book. Text includes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and contact information: 02)2004-8214.